

스포츠 열정·역사 함성...축제로 물드는 전남의 가을

프로배구·바둑대회·LPGA 투어 등 국제 스포츠 대회 풍성
명랑대첩축제 19~21일...무빙 스테이지·출정 퍼레이드 등 다채

전남도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스포츠의 열정과 역사의 함성이 공존하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프로배구 컵 대회부터 철인3종, 바둑대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까지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명랑대첩의 감동을 재현하는 역사문화 축제가 화룡점정을 찍는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가을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전남 축제의 포문을 연다. 지난 13일 여수에서 개막한 '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는 오는 28일까지 여수진남체육관을 V리그 스타들의 열정과 배구팬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V리그 남녀 14개 프로배구팀과 해외 초청팀 등이 참가해 대결을 벌인다.

신안과 영암에서는 제 11회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9월29일~10월2일)가 펼쳐진다. 한국·중국·일본·대만 등 세계 최정상급 기사 16명이 토너먼트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아마대회를 포함, 총 1100여 명이 참가해 반상 대결을 펼친다. 대회는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 바둑 팬들의 관심을 끌며 모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함께 대회 기간 해외 선수단 100여명과 함께 전남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두 대회를 통해 관람객 5만5000여명(KOVO컵 5만여명, 국수산맥 5000여명)을 유입, 94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구례에서는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26~29일)가 진행되며, 해남 파인비치 골프링크스에서는 국내 유일 LPGA 정규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10월16~19일)이 개막한다.

세계 최정상급 여성 골퍼들이 총 상금 230만 달러를 두고 샷 대결을 벌인다. 전남도는 대회 기간 최대 6만 명의 골프 애호가들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 목포와 해남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숙박 업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즈음,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 관광지에서는 역사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2025 명랑대첩축제' (19~21일)는 올해 예년보다 한층 더 강화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국내 최초로 판옥선 모양의 '무빙 스테이지'를 도입, 명랑해전을 화려한 디지털 액션 활극으로 재현한다. 대규모 회전 리프트와 화포, 불꽃 연출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공연은 관객들에게 마치 해전의 한가운데 있는 듯한 박진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수 소향도 최근 화제로 떠오른 '케이팝 대몬 헌터스'의 주제가를 부른다.

이 밖에도 1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출정 퍼레이드', 해군·해경 함정이 울돌목 바다를 누비는 '해상 군함 퍼레이드' 등 60여 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행사 기간 펼쳐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가을 전남은 세계적인 스포츠의 열정과 선조들의 위대한 승리를 기리는 감동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즐기는 행사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남이 명실상부한 스포츠·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광주전남시도민회 창립 7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광주전남시도민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고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매 빠를수록 좋아요”...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

1차 40%·2차 30% 할인 적용

내년 9월 개막하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가 시작됐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1차 사전예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원가의 40% 할인이 적용돼, 성인 9000원, 청소년 6000원, 어린이 4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단체·가족·전(全) 기간권 등 구매시에도 각 입장권 별 추가 할인에 더해 사전 예매 혜택이 추가 적용된다. 특히 전 기간권은 전남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 남동권 주민의 경우 정상가의 절반 수준에 구매가 가능하다.

조직위는 관람객을 위한 맞춤 혜택도 마련했다. 내국인 20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이 입장할 경우 단체 할인권이 적용되며, 인솔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할인권을 구매하면 정상가(3만2000원)의 절반 수준인 1만90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여수시민과 65~74세 이하, 군경,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우대 할인권을 통해 입장권을 8000원(성인기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전남도민과 자매도시, 남해안남동권 주민은 야간권을 정상가의 50%에 구입할 수 있다.

입장권은 인터파크 '놀터켓'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예매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다. 조직위는 티켓 구매처를 농협과 권역별 읍면동, 대형마트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1차 사전예매 종료 후 30% 할인율이 적용되는 2차 사전예매 (2026년 1월 1~5월 31일)와 20% 할인율이 적용되는 3차 사전예매 (2026년 6월 1~9월 4일)를 순차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바다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이 섬의 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국제행사"라며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바라며, 사전예매를 통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서명운동

10월 21일까지 10만명 목표

광주시가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목표는 10만 명이며, 기간은 이번 달부터 10월 21일까지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 공모 일정에 맞춰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에 대한 범시민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서명 방식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은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링크 공유를 우선 활용하고, 시 홈페이지 배너 클릭과 플래카드·배너에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오프라인은 각종 회의·행사와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서명부를 비치해 받기로 했다.

홍보는 경제계와 대학가, 학생층에 초점을 맞춘다. 광주상공회의소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관내 18개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를 통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중·고교는 진로 교육과 연계해 학생·학부모 참여를 끌어낸다.

도심 곳곳의 가시성도 높다. 시 사업소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송정역·우스퀘어·광주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걸고, 계수사거리·서구문화센터사거리·농성역 안의 시정정보 전광판과 G.MAP 미디어파사드, 구청 미디어월 등 대형 스크린을 활용해 영상과 카드뉴스를 송출한다.

광주시 SNS 채널(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가카오톡·블로그, 친구 약 28만 명)을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

공모 이후에는 지역 단체·기관의 공식 지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관계기관, 전국 여론에 지역사회의 의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창업기업 혁신제품 ‘테크니컬 투어’ 개최

기업·수요기관·투자자 연결...무전력 조리매연 저감장치 실증 성과

광주시가 전기 없이 조리 매연을 걸러내는 'ESG 조리매연 저감장치' 실증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테크니컬 투어'를 열고 제품 작동 원리와 성능을 공개했다.

'테크니컬 투어'는 창업기업의 혁신기술을 실증에서 사업화로 잇기 위해 기업과 수요기관, 투자자를 한데 묶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지역 창업기업 에어데이터랩이 개발한 해당 장치를 급식실 환경에 설치해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이동혁 에어데이터랩 대표와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시교육청, 투자자 등이 참석해 실제 조리 과정에서의 성능을 확인했다.

이 장치는 무전력 방식으로 활성탄, 프리필터, 카본필터 등 3단계를 거쳐 조리 중 발생하는 매연을 포집·저감한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여서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모듈형 설계로 급식시설 규모에 맞춰 증설·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급식실 조리원은 "이전에는 조리 과정 냄새가 조리실로 많이 유입됐는데, 장치 설치 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경쟁력은 우수하다"며 "연간 유지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투자자는 "급식실 주변 외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솔루션으로,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이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실증에서 확인된 성능·비용 데이터와 교육 현장 수요를 근거로, 무전력·저유지비라는 특징을 앞세운 급식시설 특화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는 창업기업이 혁신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지원사업과 테크니컬 투어를 통해 우수 기술이 시민 생활 속에서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목표로 현재 49개 기업을 선정해 제품 실증사업을 지원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